서른 여섯 개의 상자를 짊어진 신하

<백유경(百喩經)>

옛날 한 왕이 무우원(無憂園)에 들어가 즐겁게 놀기 위해 신하에게 말했다. “그대는 궤짝 하나를 들고 저 동산으로 가서, 내가 앉아 쉴 수 있게 하라.” 신하는 남 보기에 창피스러워 들려고 하지 않고 왕에게 아뢰었다. “저는 들 수가 없습니다. 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서른 여섯 개의 궤짝을 그의 등에 지우고 그를 재촉해 동산으로 갔다.
범부들도 그와 같다. 여자의 털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계율을 지킨다”고 하며 그것을 집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번뇌에 홀리어, 서른여섯 가지 물건, 즉 털, 손, 발톱, 이, 똥, 오줌 따위의 더러운 것도 더럽다 하지 않는다. 서른 여섯 가지 더러운 물건을 전부 붙잡고도 부끄러워하는 생각이 없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궤짝을 지는 것과도 같다.

옛 판화의 세계

용모가 샘이 솟아나게 하다
용모용천(龍母湧泉)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용모용천(龍母湧泉)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지장이 뱀과 전갈에 몸을 다쳐 선정에 들어있을 때 용모가 나타나 절을 하고 약을 선물하면서 자식이 무지해서 저지른 일임을 사과하고 샘이 솟게 하여 허물을 참회하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지장(地藏) 스님은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24세에 출가했다. 중국에 건너가 각지를 돌며 구도생활을 하다가 양쯔강(揚子江) 남쪽 구화산(九華山)에 화성사(化城寺)를 짓고 불법을 전파했다. 명성이 높아져 중국 각지는 물론 신라에서까지 불법을 들으러 옴으로써 구화산은 불교의 성지가 됐다. 794년 99세의 나이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참선 중 입적했다. 3년이 지나도록 시신이 썩지 않아 등신불이 됐는데, 아직도 구화산 육신보전에 그의 등신불이 봉안돼 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화산에서 수행하던 중 뱀과 전갈 때문에 몸을 다쳐 단정히 앉아 무념의 경지에 들어갔다. 어느 날 갑자기 한 아름다운 부인이 나타나 절을 하고 약을 선물하면서 말했다. ‘어린아이가 무지해서 저지른 일이니 원컨대 샘이 솟아나게 해 허물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말이 끝나자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가 앉아 있는 좌우를 살펴보니 바위 사이에서 단 샘이 솟아 나왔다. 또한 본국인 신라에서도 소식을 듣고 바다를 건너서 서로 찾아오고 그 문도 또한 많아서 한 해를 넘길 자량을 구할 길이 없었다. 이에 지장 스님은 곧 바위를 발굴해 그 속에서 흙을 얻었는데 그 빛깔이 맑고 하얗고 빻지 않아도 국수와 같아서 대중들과 함께 그것을 먹었다. 그곳 대중들은 법을 듣는 것으로 정신을 돕고, 음식으로 목숨을 보양하지 않게 돼 그를 종사로 우러러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에게 김교각 지장보살로 잘 알려진 지장 스님의 신통력은 본문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는 시신이 썩지 않는 등신불이 열한 분 나타나셨는데 지장 스님이 중국 최초의 등신불이 되신 분으로 지장보살의 화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전 세계에 인도를 가장 빛낸 분이듯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태어나 전 인류의 4분 1인 중국 사람들이 지장보살 성인으로 받들고 있는 김교각 스님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가장 많이 알린 인물일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조명해 불교포교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詩가 있는 도량

▪ 고란사 약수

어느 질곡을 거쳐
예까지 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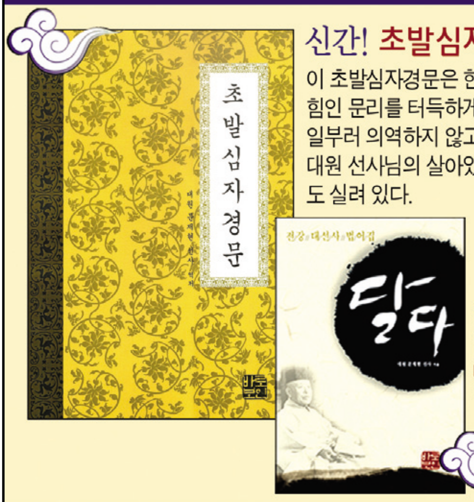
천년을 삭인
눈물

종지에 너울대는
의자왕과
궁녀들의 옷자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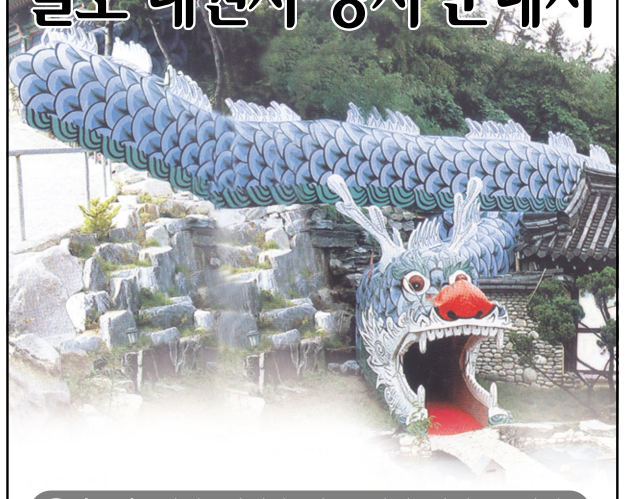
무수한 칼날과 죽음
아우성
목탁소리

한모금 한모금
청량하게 가슴으로 떨어지는
슬픈 풍경소리

–강연/신작 시집<넌 이미 꽃이다>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칠포 대원사 성지 순례지

용의크기 : 넓이 2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이옵니다.
(칠포 해수욕장 15분거리)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하였습니다.
용의 뱃속에 천불전,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7천 부처님을 봉안 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禪)선종 총본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607번지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거제도 총명사 신중탱화

거제도 총명사 칠성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6-219-7180 / 011-743-5167